

# “전 세계 팬들이 첫 손 꼽는 K팝 그룹 목표”

방시혁 총괄프로듀서 등 전폭 지원  
선 주문도 91만장...전작의 두배나  
“우리만의 차별점 음악과 퍼포먼스  
음원차트·음악방송 1위 하고 싶어”

“가장 주목받는 케이(K)팝 그룹이 되고 싶다.”

‘차세대 슈퍼 루키’, ‘핫 아이콘’, ‘4세대 대표 아이돌’... 웬만한 성과를 내는 이런 타이틀을 얻기 어렵다. 지난해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랜드’를 통해 결성해 국내외 팬들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11월 데뷔한 엔하이픈은 이 모든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데뷔 2개월 만에 가요시상식 신인상 4관왕 등 최고의 신인으로 떠올랐고, 두 번째 미니음반으로는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8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들에게 만족이란 없다. 전 세계 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가장 주목받는 케이팝 그룹”이 되기를 꿈꾼다.

데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엔하이픈이 12일 첫 정규앨범 ‘디멘션:딜레마’(DIMENSION:DILEMMA)를 발표한 것에서도 자신감이 엿보인다. 이제 ‘보더’ 연작을 마무리하고 ‘디멘션’ 시리즈를 새롭게 이어간다.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세계에 들어간 소년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알게 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딜레마에 빠지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타이틀곡 ‘타임드-대시드’(Tamed-Dashed)에도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 ‘욕망에 길들여질 것인지(Tamed), 욕망으로부터 내용땀이칠 것인지(Dashed)’에 대해 질문하는 곡이다.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이 12일 열린 첫 정규 앨범 ‘디멘션: 딜레마’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춤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우리만의 성장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사진제공 | 빌리프럼

‘아이랜드’에서 이들을 선발한 방시혁 총괄 프로듀서와 원더키즈 등 하이브 대표 프로듀서 사단이 참여했고, 선배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연준도 수록곡 ‘블록버스터’에 피처링하며 지원 사격했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앨범은 선 주문량 91만장(7일 기준)을 돌파했다. 4월

두 번째 미니음반 ‘보더:카니발’(약 45만장)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은 “수식어나 평가 등은 좋은 무대의 원동력인 것 같다. 그동안처럼 더 발전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음원차트나 음악방송에서 1위에 오르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엔하이픈의 트레이드마크는 일곱 멤버

버들이 펼쳐는 화려한 군무다. 이들은 “최고 퍼포먼스”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했다.

“수많은 케이팝 그룹 속에서 우리만의 차별점은 음악과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멤버 한 명 한 명이 개성 있고, 무대 위에서 시너지지를 내고 있어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노엘 구속



장용준(노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21)이 결국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재물손괴(차량 파손),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를 받은 노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집행해 그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노엘은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접촉사고가 난 뒤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서초경찰서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한 뒤 1일 노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엘이 구속된 것은 사건 발생 24일 만이다.

앞서 노엘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만큼 법조계는 향후 재판에서 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엘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직전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노엘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해 3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연예뉴스 HOT 3

### ‘간부 할아버지’ 오영수 가짜 SNS까지 등장



오영수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 속에 ‘간부 할아버지’ 오영수의 가짜 SNS까지 등장했다. 12일 오영수의 인스타그램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개설됐다. 이종재·정호연·김주영 등 ‘오징어게임’ 주역들의 SNS가 팔로어를 급격히 늘려가는 와중에 ‘Korean Actor Yeongsu Oh #squidgame(코리안 액터 영수 오 #오징어게임)’이라는 프로필과 오영수의 사진을 내걸었다. ‘오징어게임’ 촬영장 모습 등이 게시물로 오른 계정을 동료 배우들과 국내외 팬들이 팔로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팬 계정으로 밝혀졌다. 해당 계정이 큰 화제를 모으자 이날 오후 해당 SNS에는 ‘이것은 팬 계정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는 공지가 올랐다.

### BTS, 美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최다 1위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최다 1위 기록을 썼다. 12일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무려 45주 해당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 사상 최다 1위 기록으로, 44주의 팝스타 테일러 스윙프트를 제쳤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와 합작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2위를 차지했다. 지난주보다 11계단 하락했다. 그룹 트와이스도 첫 영어 싱글 ‘더 필즈’(The Feels)로 ‘핫100’ 차트에 83위로 진입했다.

### 이훈 위기 딛고 재결합한 황정음 둘째 임신



황정음

이훈의 위기 직전 남편과 재결합한 황정음이 둘째를 임신했다. 12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최근 둘째 아이를 가졌다”면서 “내년 출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2월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민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결혼 4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과 이훈 절차를 밟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올해 7월 이훈조정 과정에서 재결합했다.

편집 | 안도영·유진환 기자

## 제작수수료 15%→4% 감이 된 넷플릭스

코로나19로 콘텐츠 소비 늘어나  
플랫폼 부족...수수료 4%대 하락  
오징어게임 10% 조건 그림의 떡  
“4%라도 확보” 현실적인 시각도

‘4% 밖에?’ VS ‘4%라도!’

최근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한 영화 제작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제작 수수료가 최저 4%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세계적 인기인 ‘오징어게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관계자는 ‘오징어게임’처럼 “제대로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 섞인 표정을 지었다.

넷플릭스의 제작 수수료가 영화·방송계

안팎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영화·시리즈의 제작비 전액을 투자하면서 제작사(자)에 별도 배정하는 기획료를 포함한 인건비인 제작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감염병 확산세 속에서 영화 극장 개봉은 물론 영화·드라마 제작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 낮아진 수수료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제작 수수료는 대체로 제작비 규모의 1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 콘텐츠’ 소비가 늘고 넷플릭스도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제

작 관계자들은 말한다. 콘텐츠는 넘쳐나지만 이를 선보일 플랫폼이 한정적인데다 OTT시장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공급>수요’ 흐름이 이어졌고, 제작 수수료도 결국 최저 4%대까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방영 권리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IP)을 양도하는 조건상 부가수익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커진다. 제작비 규모 200억원으로 제작 수수료가 10%대인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가 이제 흔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관객이 극장에 가지 못해 제작비 손실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관련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제작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비교적 적은 수수료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넷플릭스의 제작 수수료가 10%대에서 최근 4%대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원 제작비를 투입한 ‘오징어게임’의 제작 수수료는 10%대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이에 대해 12일 넷플릭스 측은 “최저 4%라는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콘텐츠마다 계약 조건이 다르다. 수치보다는 각 콘텐츠의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

## ‘우리들의 블루스’ 톱스타 캐스팅의 비밀

(이병헌·차승원·한지민·김우빈·엄정화·이정은·신민아)

‘옵니버스’ 포맷, 매회 새인물 부각  
스타작가 노희경 신작 신뢰 한 몫

이병헌, 신민아, 차승원, 한지민, 김우빈, 엄정화, 이정은...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 톱스타들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뭉친다.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주연으로 활약해온 이들이 한 작품에 나란히 캐스팅되면서 내년 방송을 앞두고 벌써부터 방송가 안팎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방송가에 따르면 드라마는 옵니버스 포맷(하나의 주제로 여러 편의 짧은 이야기를 엮는 방식)으로 제주 태생 트러맨물상 이병헌, 1년 차 초보 해녀 한지민 등 다양한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90%가량 분량을 책임지는 것과 달리 배우들이 에피소드별로 다양한 캐릭터 분량을 나눠 연기한다. 한 배우가 긴 시간 촬영하거나 모든 배우가 한 회에 모두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에 제작진은 올해 여름 제작 준비를



이병헌



한지민

마치고 조·단역 촬영 일정을 먼저 소화했다. 이후 김우빈·한지민 등이 지난달 말 제주도 촬영을 시작했다. 현재 방영 중인 tvN ‘갯마을 차차차’ 일정을 막 마친 신민아 등 다른 배우들도 촬영에 합류할 예

정이다.

옵니버스 포맷은 SBS ‘괜찮아 사랑이야’, tvN ‘라이브’ 등 대본을 쓴 노희경 작가의 새로운 시도이다. 12일 한 제작 관계자는 “노 작가가 회당 60분 16부작의 기존 드라마 방식이 아닌 색다른 포맷에 도전하고 싶어 했다”면서 “이번 드라마로 많은 인물을 한꺼번에 내어 보이는 방식으로 회당 40분 분량 20부작으로 풀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우들도 노 작가에 대한 신뢰로 출연을 결정했다. 이들은 애초 노 작가의 드라마 ‘히어’에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작이 여의지 않아 ‘우리들의 블루스’로 자리를 옮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